

고포화자화 (Fe, Co)-Zr-B-Cu계 초미세결정립합금의 자기특성

조용수

한국표준과학연구원

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305-626

김동환·김택기

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

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, 302-764

(1993년 8월 3일 받음, 1993년 8월 28일 최종수정본 받음)

급속응고법으로 제작된 비정질 $Fe_{85-x}Co_xZr_7B_7Cu_1$ 합금의 열처리에 따른 구조 및 자기특성이 조사되었다. 비정질 $Fe_{85-x}Co_xZr_7B_7Cu_1$ 합금은 600 °C 이하의 열처리온도에서 약 10 nm의 초미세결정립이 형성된다. 600 °C 이상의 열처리조건에서는 결정립크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기특성을 열화시킨다. $Fe_{85-x}Co_xZr_7B_7Cu_1$ 합금의 최적열처리온도는 Fe - Zr - B 초미세결정립합금에 비하여 낮으며, 결정립크기 또한 감소한다. 이는 Cu의 첨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 최적열처리조건에서 $Fe_{80}Co_5Zr_7B_7Cu_1$ 초미세결정립합금의 포화자화 및 $f=50$ kHz, $B_m=0.2$ T에서 측정한 투자율 및 철손은 각각 157.3 emu/g (1.5 T), 1.8×10^4 및 13 W/kg으로 자기특성이 가장 우수하다.

I. 서 론

비정질 연자성재료는 응용분야에 따라 고포화자화의 Fe 기 비정질합금과 영자왜조성에서 고투자율인 Co 기 비정질합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. 그러나 비정질 연자성재료의 응용에 있어서 고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자기특성은 고포화자화 및 고투자율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. 최근에 개발된 Fe 기 초미세결정립합금은 이와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자기적특성을 나타낸다[1, 2]. 이들 초미세결정립합금중 Fe - Si - B - Nb - Cu 합금은 고투자율, 저항자력의 자기특성은 우수하나, 비교적 낮은 포화자화(≤ 1.2 T)를 나타낸다. 반면에, Fe - Zr - B 합금은 Fe - Si - B - Nb - Cu 합금에 비하여 투자율 및 항자력은 다소 열화되나, 고포화자화(≤ 1.7 T)를 나타낸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 - Zr - B 합금의 포화자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Co 를 치환하였으며, 결정립미세화에 의한 자기특성의 개선을 위하여 Cu 를 첨가하여 구조 및 자기특성을 조사하였다.

II. 실험방법

$Fe_{85-x}Co_xZr_7B_7Cu_1$ ($x=0, 5, 10, 15, 20$) 조성의 모

합금은 아르곤가스 분위기중에서 아크로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. 급속응고시료는 단률급속응고장치를 이용하여 35 m/s의 표면속도에서 두께 20 μm , 폭 1 mm의 리본형으로 제조하였다. 급속응고시료의 포화자화는 진동시험마그네토미터(VSM, LDJ Model 9500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, 철손 및 투자율은 single strip 교류자기이며 꼭선측정장치를 이용하여 $f=50$ kHz, $B_m=0.2$ T에서 측정하였다. 결정화온도는 전기비저항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온도에 따른 비저항의 변화를 분석하여 구하였으며, 이로 부터 열처리조건을 결정하여 약 2×10^{-5} torr의 진공중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를 행하였다. 구조는 Fe - $k\alpha$ X-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평균결정립크기는 X-선 회절패턴으로 부터 Scherrer의 식[3]을 이용하여 구하였다.

III. 결과 및 고찰

급속응고된 $Fe_{85-x}Co_xZr_7B_7Cu_1$ 합금을 X-선회절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조성에서 비정질상 특유의 broad한 회절패턴이 나타난다. 이로부터 $Fe_{85-x}Co_xZr_7B_7Cu_1$ 합금은 전조성에서 비정질상이 형성 가능함을 알

수 있다. Fig. 1은 10 /min의 승온속도로 조사된 전기 비저항의 온도의존성으로 부터 전기비저항이 급격히 변하는 온도를 측정하여 결정한 비정질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의 Co조성에 따른 1차 및 2차 결정화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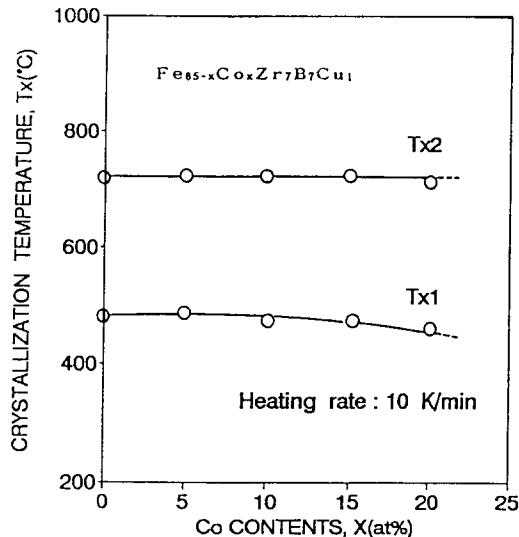


Fig. 1. Composition dependence of crystallization temperature for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amorphous alloys.

Fig. 1에서 비정질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의 1차 결정화온도는 475~460 °C로 Co함유량에 따라서 완만히 감소하나 2차결정화온도는 약 725 °C로 거의 일정하다. Fig. 1의 결과로 부터 Co치환량에 따른 1,2차 결정화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Co의 원자특성이 Fe와 유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. 따라서 비정질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에서 Co치환은 열처리에 의한 초미세 결정립 형성에 있어서 α -Fe(Co) 결정립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1,2차 결정화온도의 차는 약 250 °C로 비교적 얕은 온도구역에서 α -Fe(Co)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와 같은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열처리온도에 따른 X-선회절실험을 행하였으며, Fig. 2는 x=15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.

Fig. 2에서 1, 2차 결정화온도 사이의 온도영역에서 열처리한 시료는 단상의 α -Fe(Co)가 석출하며, 2차결정화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α -Fe(Co)와 Fe_3Zr 이 석출됨을 알 수 있다. 이는 전조성에서 같은 경향이다. 이와 같이 조사된 X-선회절실험으로 부터 α -Fe(Co)의 결정립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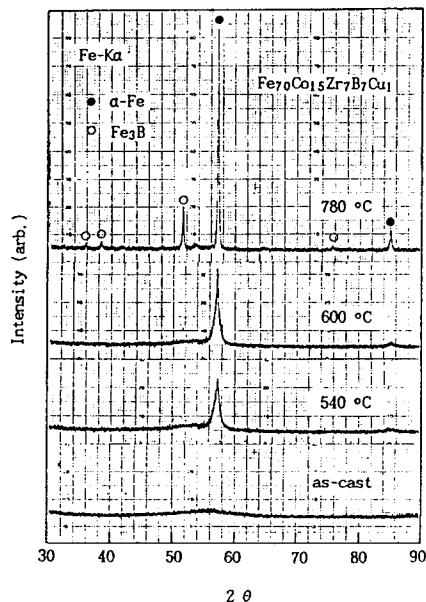


Fig. 2. Change in the X-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amorphous alloys with annealing temperature.

조사된 X-선회절실험으로 부터 α -Fe(Co)의 결정립크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Scherrer의 식[3]을 이용하였으며, 그 결과는 Fig. 3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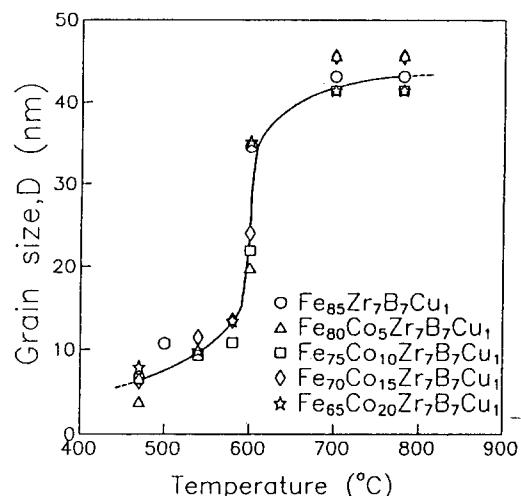


Fig. 3. Dependence of average grain size for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nanocrystalline alloys on annealing temperature.

Fig. 3에서 결정화된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의 α -Fe(Co) 결정립크기는 600 °C이하의 열처리온도에서 평균 약 7~13 nm이다. 그러나 600 °C이상의 열처리온도에서는 결정립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며, 2차결정온도 부근에서는 다른상의 출현과 함께 완만히 증가한다. Fig. 3의 결과로 부터 자기적특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최적열처리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열처리온도에 따른 투자율 및 철손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, Fig. 4는 비정질 $\text{Fe}_{80}\text{Co}_{10}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을 열처리한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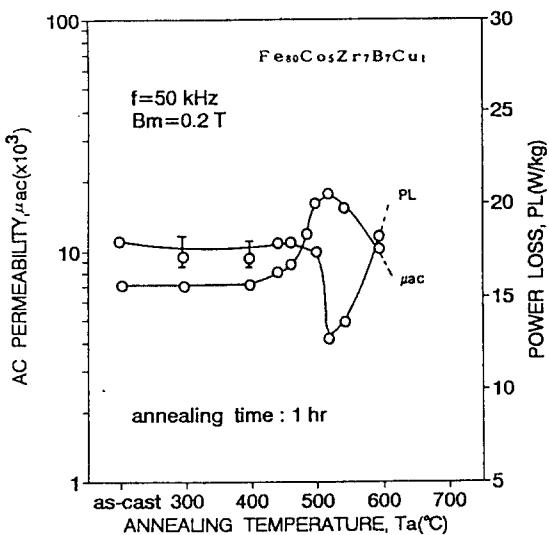


Fig. 4. Dependence of AC permeability and power loss for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nanocrystalline alloys on annealing temperature.

Fig. 4에서 투자율은 미세결정립형성으로 인하여 540 °C에서 1.8×10^4 으로 가장 높으며 이후 결정립성장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한다. 철손은 투자율과 같은 경향으로 540 °C에서에서 13 W/kg으로 최소를 나타낸 후 급격히 증가한다. Fig. 4의 결과에서 자기특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 최적열처리온도는 K. Suzuki등이[2] 보고한 $\text{Fe}_{91}\text{Zr}_7\text{B}_2$ 초미세결정립합금의 650 °C보다 약 100 °C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. 또한 최적열처리온도에서의 결정립크기가 약 10 nm로 Fe-Zr-B계 초미세결정립합금[2]에 비하여 다소 작다. 이와같은 결과는 Cu의 첨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찰된다. 즉,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Fe에 대한 Cu의 낮은 고용도는 편석(segregation)경향을 강하게 한다[4]. 이와 같은 경향으로 부터 Cu의 첨가는 Fe 기 비정질상의 결정화시 α -Fe(Co)의 핵생성속도(nucleation rate)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. 그러므로 결정화시 핵생성속도가 초기 결정화 과정을 지배하여 핵생장속도(growth rate)를 둔화시키므로써 보다 낮은 온도에서 조기에 결정립이 미세화된다 것으로 추측된다. 따라서 G. Herzer[5]에 의한 보고에서와 같이 초미세결정립합금의 자기특성은 결정크기에 의해 크게 지배되므로 Cu의 첨가는 결정립 미세화효과에 의한 자기특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 Fig. 5은 최적열처리조건에서 Co조성에 따른 투자율 및 철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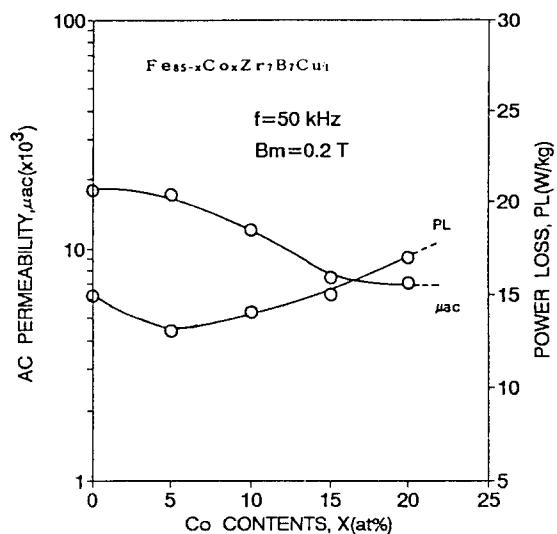


Fig. 5. Composition dependence of permeability and power loss for the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nanocrystalline alloys.

Fig. 5에서 철손 및 투자율은 $x=5$ 에서 가장 우수하며, Co치환량이 증가할수록 열화된다. $x=5$ 에서 철손의 감소는 전기비저항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 즉, 다결정 Fe-Co합금에서 $x=5$ 과 거의 같은 Co/Fe 08에서의 전기비저항은 Fe의 전기비저항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[6]. 따라서 $x=5$ 에서 철손의 감소는 전기비저항에 의한 와전류손실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, $x=5$ 이상에서 Co의 증가에 의한 철손의 증가는 전기비저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외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 Fig. 6은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의 비정질상 및 최적열처리조건하에서의 포화자화의 조성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.

Fig. 6에서 비정질상의 포화자화는 75~142 emu/g으로 Fe가 증가할 수록 감소한다. 이는 Fe-Zr계 비정질합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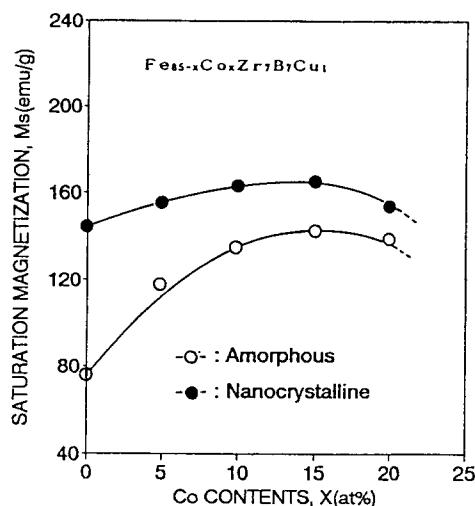


Fig. 6. Composition dependence of saturation magnetization for the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alloys.

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Zr에 의하여 Fe 함유량이 증가할 수록 반강자성상태(antiferromagnetic state)가 증가하기 때문[7, 8]으로 사료된다. 그러나 Co가 증가할 수록 포화자화는 급격히 증가하여 Fe-Co기 비정질합금과 같은 경향으로 $x=15$ 에서 최대를 나타낸 후 감소한다. 한편, 최적열처리조건에서의 포화자화는 145~165 emu/g으로 α -Fe(Co)의 석출로 인하여 동일조성에서의 비정질상의 포화자화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증가폭은 Co함유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한다. Table I은 자기적특성이 가장 우수한 $\text{Fe}_{80}\text{Co}_5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초미세 결정립합금과 다른 연자성재료의 자기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.

Table I. Magnetic properties of nanocrystalline and other soft magnetic materials.

Materials	t (μm)	B_s (T)	B_r/B_s (%)	H_c (A/m)	μ_{ac} (T)	P_L (W/kg)	ζ_s ($\times 10^3$)
$\text{Fe}_{80}\text{Co}_5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	18	1.5	70	—	18	13	—
Metalas 2605S 3A	20	1.4	65	9	9	35	20
Co-Fe-Si-B amorphous alloy	20	0.5	90	0.32	25	10	≈ 0
$\text{Fe}_{91}\text{Zr}_7\text{B}_2$ nanocrystalline[2]	18	1.7	—	7.2	14*	—	—
Fe-Si-B-Nb-Cu nanocrystalline[9]	20	1.2	60	1.3	50**	11	< 2
Mn-Zn ferrite[9]	0.5	28	14.3	10**	30	—	—

* $f=1$ kHz ** $f=10$ kHz

μ_{ac} , P_L : $f=50$ kHz, B_m : 0.2 T

Table I에서 $\text{Fe}_{80}\text{Co}_5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초미세결정립합금은 Metglas 2605S-3A합금 및 Mn-Zn ferrite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기특성을 나타낸다.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측정된 영자와 Co-Fe-Si-B 합금에 비하여 포화자속밀도는 높으나 투자율 및 철손은 열화된다.

IV. 결 론

Fe-Zr-B계 초미세결정립합금의 자기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Co 및 Cu를 Fe와 치환하여 제작된 비정질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합금을 초미세결정립합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1) 600 °C이하의 열처리온도에서 평균 약 10 nm의 초미세결정립이 전조성에서 형성되며, 600 °C 이상의 열처리조건에서는 결정립크기가 급격히 증가한다. 이는 Fe-Zr-B계 초미세결정립합금보다 최적열처리조건이 약 100 °C 정도 낮으며 결정립 또한 미세하다.
- 2) $\text{Fe}_{85-x}\text{Co}_x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초미세결정립합금의 포화자화는 $x=0$ 에서 145 emu/g이나 Co치환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여 $x=15$ 에서 165 emu/g으로 최대를 나타낸 후 감소한다.
- 3) 최적열처리온도에서 $\text{Fe}_{80}\text{Co}_5\text{Zr}_7\text{B}_7\text{Cu}_1$ 초미세결정립 합금의 포화자화는 157.3 emu/g(1.5 T)이고, $f=50$ kHz, $B_m=0.2$ T에서 측정된 투자율 및 철손은 각각 1.8×10^4 및 13 W/kg으로 가장 우수하다.

후 기

본 연구논문은 92년도 교육부 신소재분야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.

참 고 문 헌

- [1] Y. Yoshizawa, S. Oguma, and K. Yamauchi, J. Appl. Phys., 64(10), pp.6044-6046(1988).
- [2] K. Suzuki, N. Kataoka, A. Inoue, A. Makino, and T. Masumoto, Materials Transactions, JIM, 31(8), pp.743-746(1990).
- [3] B. D. Cullity, Elements of X-ray Diffraction 2nd Edition, Addison-Wesley Pub. Co., Reading Mass., pp.99(1959).
- [4] G. A. Chadwick, Metallography of Phase Transformations, Butterworths, London pp.209(1972).